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월례회입니다.

2012년 상반기 새교우환영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중교 등부실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특강 시간에 난민인권센터의 김성인 사무국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난 주일에 열렸던 초록장터에서 70만원의 수익금이 생겼습니다. 이 금액은 전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후원에 사용했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30분 만리현교회와 친선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주위에 격려가 필요한 이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생기를 잃은 화초에 물을 주듯 그에게 진심어린 격려를 표현해 보십시오. 격려의 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012 청파전교인여름수양회**  
 일시 : 8월 2일(목) - 4일(토)  
 장소 : 흥천 팔열 중고등학교

식 당 봉 사 : 이순정 오복순 오자영 박안수 이윤석 문복순 이근식  
 6/24 식 당 봉 사 : 찬양대원  
 오늘설거지봉사 : 이국노 김민화 이원호 박인혁  
 다음 주 설거지 : 이준하 김세진 정운성 서효진  
 새 교 우 : 조산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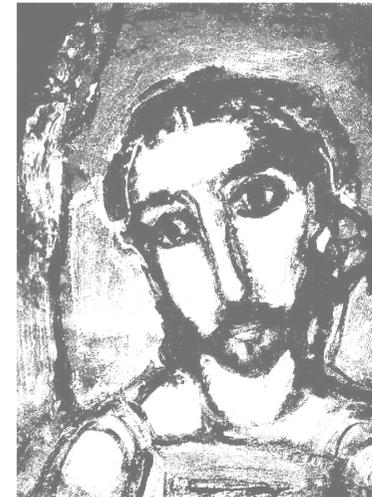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정하신 순리를 따라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성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가뭄으로 인해 짝짝 갈라지는 논밭 처럼 마음이 갈라지는 농부들의 마음을 붙잡히 여겨 주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시원한 빗줄기 내려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까지 적셔 주십시오.

주님,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이들의 오만함을 꾸짖어 주십시오.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주님의 조력자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이들이 속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미순 김용길 최영혜 김정길 최숙화 김준우 우순덕 김훈동 유경순  
 노준우 문복순 최현선 박병구 김정애 박석희 조항미 김안길 이형숙  
 양상철 박재란 오진훈 노순옥 윤수진 이광섭 이광용 형인순 이현순  
 임주빈 최현옥 장재영 김재영 정연희 정우선 조병익 조정연 주경진  
 이윤정 최윤희 한상균 허신열 홍성식 이유리

### 감사헌금:

강순배 김상현 유지민 김성한 조영순 박병구 송우석 송채원 윤정덕  
 구성실 이유일 김미희 이유정 이해령 주경진 이윤정 홍성식 이유리  
 무명5

### 녹색꿈헌금:

이영순 정현주 무명2

### 생일감사헌금:

김명희 이형석 정복순 최미자

	장혜숙 노순옥 최희영 장영숙 정경례 박홍재 박효선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정영선 박혜경 김재흥 이범석 손성현	백혜숙 박성희 최경미 최신영 진정숙 곽권희 허정운 김금순 권미숙 오현정 서정순 조향미 오자영 이근식 곽상준	박영희 박성희 이은옥 문영혜 박옥순 곽권희 김현국 김금순 권미숙 임영선 홍춘숙 최영화	교회 박미영 서원금 박경선 안정숙 백묘현 홍복선 강순배 김재광 김명희 서정순 박혜경
--	---	---	--	---

마음으로 읽는 글

## 우리 생명 있기 전

김대원

우리 생명 있기 전/ 그 전, 그때

저 하늘 저 품안에/ 저 별 저 달 있었던가

그 시절 그때에서/ 솔바람, 꽃숨결이/ 지금처럼 불었던가

푸른 솔/ 흰 두루미

몽게구름/ 꽃무지개

청아한/ 산새 노래

푸른 바다/ 흰 갈매기/ 철썹철썹 파도 소리

그 시절 그때에도/ 지금처럼 있었던가

우리 생명 있기 전/ 그 전 그때도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오지은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대에 기쁨 마음으로 응하십시오. 지난 과거에 붙들려 있지 말고 주님의 영을 따라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뜻밖의 선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에 불만족하면서도 선뜻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을 따라 하루하루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골로새서, 나를 깨우다! / 손성현 기도 : 김영순 전도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재흥 목사	최희영 선생 하현철 권사

6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용진 김남종 오복순 박효선 강순배
	헌금위원	윤석철 정경례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식물도 당신이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

작가 최인호는 ‘초등학교 때의 친구가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 영혼과 영혼이 만나 깊은 우정을 쌓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아기가 태어나면 주변 환경에 반응하면서 1천억 개의 신경세포와 50조-1천조 개의 시냅스를 조합해서 뇌의 알개를 만든다. 아기의 뇌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원뇌, 고피질, 신피질의 순으로 뇌를 완성해 나간다. 태어나서 우선 감정과 정서의 뇌인 고피질이 만들어진다. 고피질인 가장 자리계통은 언어 형성, 기억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말하자면 고피질에 엄청난 메모리 영역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메모리 영역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한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분이 걸리고, 그와 사귀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면 된다. 하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 컴퓨터에 저장된 기억은 포맷으로 간단히 지워지지만 인간의 기억 영역에 저장해 놓은 것은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호락호락 지워지지 않는 것도 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의 기억은 찰거머리같이 마음에 붙어서 시시때때로 떠오른다. 행복했던 기억도 불행했던 기억도 오래오래 남아 있다. 그래서 투자의 달인은 권한다.

“상대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을 남기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다.”

사람이 기억하는 것처럼 식물도 기억할까? 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히데오 토리야마는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한다.

1960년 8월 13일, 일본 동경에 태풍이 닥쳐왔을 때의 일이다. 동경여자대학교의 연구원 히데오 토리야마 연구원은 신경식물의 기억력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예민한 미모사를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었다. 식물에게 자극을 반복적으로 주었을 때 그 자극을 기억하느냐를 보는 것이다.

그는 창 밖 화단에 심겨져 있는 미모사와 함께, 조금 전에 그 옆에 내다 놓은 또 다른 미모사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 놓아둔 것은 방금 전까지도 그의 실험실에서만 자라왔다.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강풍을 맞고 있는 이 두 미모사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화단에서 자라는 미모사는 강풍을 맞자 즉시 잎을 접었지만 몇 시간이 지나자 잎을 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밖으로 옮겨 놓은 미모사는 바람이 부는 동안 내내 잎을 열지 않았다. 사뭇 밖에서 자란 것은 이미 경험했던 바람을 ‘기억’하고 있었다.

토리야마는 실내 미모사에게 하루 10시간씩 선풍기로 강풍을 보냈다. 이렇게 ‘바람 훈련’을 반복적으로 받은 미모사는 이 자극을 기억했다. 바람에 익숙해진 미모사는 바람이 불어오면 일단 잎을 접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자극은 자연현상에 불과해’라고 판단하고 잎을 열어 일상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바람을 맞으며 자란 미모사는 바람을 ‘기억’하고, 이미 경험한 자극에 대해서는 민감도가 떨어져 다시 오는 자극은 ‘무시’하는 것이다.

프랑스 식물학자 칸들은 ‘미모사를 반복해서 때리거나, 낮은 전기로 감전시켜 훈련하면 처음에는 잎을 닫지만 자극이 계속되면 무시하고 잎을 연다. 심지어는 아예 처음부터 무시하고 반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훈련된 행동을 본래의 예민한 상태로 되돌리려면 기억이 지워지도록 상당기간 조용하게 놓아두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

식물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을 기억했다가 다가오면 무서워하거나 환영한다고 벅스터는 말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주변의 식물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있을까? 태풍 같은 존재일까? 아니면 따뜻한 손길일까? 만일 당신이 태풍 같은 존재일거라고 판단된다면 당신 정서의 어떤 부분에 태풍이 존재할 것이며, 따뜻한 손길일거라고 판단된다면 당신은 자연을 사랑하는 멋있는 존재라고 정의해도 될 것 같다. 당신 자신 속의 태풍 또는 따뜻한 손길 중 ‘태풍’은 때론 당신 자신을 괴롭히고, ‘따뜻한 손길’은 때로 당신 자신을 어루만져줄 것이다.